GIJUN_DESIGNER

AUGUST 20, 2026

학원, 계속 다녀야 할까요?

3분 홈테스트 —
"끊어야 할 신호"를 정확히 아는 법

성적이 안 나올 때, 부모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그냥 참고 계속 보내거나,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바꾸거나.
둘 다 틀렸습니다.
원인을 모르고 내리는 결정은 반은 운이고 반은 낭비입니다.

이 홈테스트는 부모가 "판단"하는 게 아니라,
아이에게 딱 2분짜리 행동을 시켜보고
그 반응만으로 원인을 가려냅니다.
체크박스에 스스로 표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.
오늘 저녁에 직접 해보는 진단입니다.

— 공부 설계도 저자

몇 개월 다녔는지부터 확인하세요!

"몇 달 다녔는데도 성적이 그대로예요."
이 한 문장 안에는 사실 세 가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.

- **아이가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**
- **개념은 알지만 문제를 푸는 속도나 적응력이 부족한 상황**
- **학습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가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**



이 세 가지는 원인도, 해결책도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런데 진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얼마나 다녔는가.
새로운 학습 방식이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배운 걸 다시 꺼내보고, 틀리고, 다시 채우는 과정이 몇 차례는 반복돼야 실력으로 붙습니다. 그 전에 "왜 안 늘지"라고 판단하면 오진입니다.

기간 게이트 — 학원 (또는 과외)을 다닌 지 몇 개월째 인가요?	
8주 미만	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. 뒤의 홈테스트는 해보되, 결과와 무관하게 4주는 더 지켜보세요.
8주 ~ 6개월	지금이 정확한 진단 시점입니다. 아래 홈테스트로 넘어가세요.
6개월 이상	진단이 늦었을 수 있습니다. 홈테스트 결과가 무엇이든, "왜 이렇게 오래 지켜봤는지"부터 스스로 점검하세요.

과목별 3분 홈테스트

체크박스에 표시하지 마세요. 오늘 저녁, 아이에게 딱 2분만 시켜보세요. 반응을 보고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.

수학

오늘 해볼 것: 이번 주에 배운 개념 하나를 골라 "선생님처럼 나한테 설명해줘"라고 시키고, 2분을 재보세요.

• 예시까지 들어가며 설명한다	개념은 문제 없음
• 설명은 하는데 버벅이고 예시를 못 든다	속도, 적용 문제
• 설명 자체를 시작도 못 한다	개념문제
• "몰라, 귀찮아" 하며 시도 자체를 거부한다	태도문제

영어

오늘 해볼 것: 자막 없는 영어 영상 1분을 틀어주고 "무슨 내용이었어?"를 물어보세요.

• 큰 줄기는 이해한다	듣기는 문제없음 (읽기 속도 별도 확인)
• 어는 들리는데 문장으로 못 엮는다	문법·구문 문제
• 아예 못 알아듣는다	듣기 절대량 부족
• 틀어주기도 전에 "귀찮아, 안 볼래	태도문제

국어

오늘 해볼 것: 지문 하나(A4 반 페이지 분량)를 3분 안에 읽게 하고, 덮은 뒤 "무슨 내용이었어?"를 2문장으로 말해보라 하세요

• 2문장으로 요약된다	독해는 문제없음 (시험에서 밀리면 속도 문제)
• 다 읽었는데 요약을 못 한다	독해력 문제 (가장 시급)
• 3분 안에 다 못 읽는다	읽기 속도 문제
• 지문을 펴는 순간부터 딴짓한다	태도문제

판정 결과 + 다음 한 달 행동 가이드

최우선 처리 원칙

먼저 확인: 태도 문제가 하나라도 나왔다면

과목이 무엇이든 **"귀찮아", "몰라"로 시도 자체를 거부**하는 반응이 나왔다면, 다른 진단 결과는 잠시 미뤄두세요. 학원을 바꿔도, 개념을 다시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. 태도 문제가 먼저입니다.

다음 한 달: 학원 하나를 줄이고, 그 시간에 부모와 함께 "이번 주 계획"을 스스로 세워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.

태도 문제가 없다면

속도·적용 문제가 나왔다면 학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. 개념은 잡혀 있고, 실전 훈련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.

다음 한 달: 학원을 바꾸지 말고, "시간 재고 푸는 연습"과 "오답을 원인별로 기록하는 습관"만 추가하세요.

개념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8주 이상 다니고 있었다면, 그 학원의 진도나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 신호입니다.

다음 한 달: 그만두기 전에 먼저 학원 선생님께 "정확히 어느 개념에서 막히는지" 직접 물어보고, 2주 안에 개선이 없으면 과외나 소규모 개별 지도로 전환을 고려하세요.

과목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수학은 속도 문제인데 영어는 태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**과목별로 따로 판단하는 것, 그것이 핵심입니다.**



지금 잘하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

방금 진단에서 "계속 다녀도 됩니다"가 나왔다면 다행입니다.
그런데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세요.

지금 잘하는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무너지는 데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.
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.

『공부 설계도』 8장 "고등학교에서 무너지는 초등 우등생의 패턴"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다룹니다.

고등학교에서 무너지는 초등 우등생의 패턴
선행학습에만 의존한 아이
암기에만 의존한 아이
사교육에만 의존해 자기주도력을 잃은 아이
체력을 초등·중등 시기에 다 쓴 아이
성적으로만 평가받아 온 아이

지금 다니는 학원이 문제없다는 게, 이 다섯 가지에서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.
각 패턴의 구체적인 자가진단과 예방책은 책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다음 단계

이 홈테스트는 "학원 하나를 계속 보낼지"에 대한 기준입니다.

그런데 부모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영어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, 선행학습은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, 이번 시기를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가,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 아이들은 왜 무너지는가.

학년마다, 과목마다, 결정의 순간마다
이런 기준이 다 다르게 필요합니다.

『공부 설계도』는 유치원 결정부터 고3까지, 부모가 마주치는 모든 판단의 순간마다 체크박스가 아니라 **직접 해볼 수 있는 진단과 실행 계획**을 담은 책입니다.
정보를 더 주는 책이 아닙니다. **정보를 판단할 기준을 주는 책입니다.**
방금 확인한 "학원 지속 여부" 기준은 이 책에 담긴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. 유치원 입학 결정부터 대학 입시 전형 선택까지, 학년마다·과목마다·시기마다 이런 진단과 실행 계획이 **수십 개 챕터에 걸쳐** 담겨 있습니다.



GIJUN_DESIGNER

@gijun_designer
gjretd001@gmail.com